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너는도 서로
나의 빛을
빛의 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창조절 1주 】

(2부 선찬양: 412. 내 영혼의)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홍 목사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626.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x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김기석 목사
 ▲ 경배의 찬송 29. 성도여 다 함께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와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맑고 파란 하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 같고 시원한 바람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 같습니다. 자주 쓰러지고 방황하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홍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달 동안 계속 내린 비로 국토의 1/3이 물에 잠기고 3,0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이들, 당장 잘 곳과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게 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심정으로 그들을 힘껏 돕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그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사 65:17,18 인도자
 ▲ 교 독 문 85. 요한일서 4장 다 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2부 대표기도 조항범 권사
 2부 응 답 송 찬양대
 2부 찬 양 93.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 함께
 ▲ 성경봉독 고후 1:3~7 1부:인도자/2부: 김태한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 독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 께

찬 양	I. 중만	마중물 찬양대
	II. 크신 뜻 이루소서	청과 찬양대
말 씬	우정과 환대의 세상 열기	김기석 목사
거둬 기도		다 함께
2부 찬 양	539. 너 예수께 조용히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증오와 분열의 세상에 맞서 우정과 환대의 세상을 열어가십시오.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던 우리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이들 곁에 다가가 주님의 위로를 전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께 도움과 위로받기만을 원할 뿐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분열과 갈등의 세상에 맞서겠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정과 환대의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다음주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범석
2부	김기석	하현철	김해선	이재훈

 청과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ungpachurch/>

 청과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청과교회 카카오톡 채널 : 친구검색창에 '청과교회' 검색 후 채널 추가

※ 헌금계좌 : 새마을금고 9002-1751-3375-3 (예금주 : 청과교회)

